



25일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한화와 삼성의 경기12회초 2사 2루, 삼성 박진만이 1타점 중전안타를 친 뒤 힘차게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진만 결승타...삼성 한발 앞섰다

### 한화와 연장 혈투 끝 4-3 승...2승1패



#### ■ 한국시리즈 3차전

‘명품’ 유격수 삼성 박진만(30)이 위기에 몰린 팀을 구해냈다. 3-3으로 맞선 연장 12회 초 한화 마무리 구대성과 마주한 박진만은 결승 안타로 2루에 있던 김창희를 불러들여 4-3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6타수 3안타, 2타점으로 필살안타 박진만은 역대 한국시리즈 최다 출장기록(42경기)까지 세우며 최고의 스타로 우뚝섰다. 삼성은 25일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한화-삼성의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연장 12회초 박진만의 결승타에 힘입어 4-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2승1패로 한 걸음 앞

서나간 삼성은 남은 4경기에서 2승만 하면 지난해에 이어 2연패,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23차례 벌어진 한국시리즈는 1승1패의 상태에서 3차전을 이긴 팀이 9번 중 8번이나 우승컵을 거머쥔 사례가 있어 그만큼 삼성이 유리해졌다. 이날 기선은 삼성이 먼저 잡았다. 삼성은 선두타자 박한이의 우전안타와 상대 3루 실책을 묶어 만드 무사 1,3루 찬스서 양준혁의 내야 땅볼로 선제점을 뽑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삼성은 5회에도 박진만과 김한수의 적시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확정짓는 듯 했다. 허리와 마무리에 ‘KO 펀치’ 권오준-오승환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호투하던 하리칼라가 5회말 2사 후 만투의 위기를 맞아 지체 없이 권오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권오준은 상대 4번 타자 김태균을 바깥쪽

직구 3개로 삼진 처리하며 급한 불을 끄다. 하지만 잘 던지던 권오준은 8회 첫 타자 김태균에게 좌중간 홈런을 얻어맞고 어이없이 무너졌다. 삼성은 곧바로 마무리 오승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믿었던 오승환마저 8회 2사 1루서 한화 심광호에게 동점 투런포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스코어는 3-3. 삼성은 다행히 연장 12회초 박진만의 적시타로 1점을 뽑아 길고 긴 승부를 마감했다. 적지인 대구에서 1승1패로 대성공을 거뒀던 한화는 1회초 실책과 야수선택으로 선취점을 헌납한 데 이어 공수교대 후 2사 만투에서 이도형이 발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한화는 5회 2사 만투, 7회 2사 1,2루서 김태균과 데이비스가 삼진을 당하는 등 찬스마다 타선이 터져주지 않았다. 4차전은 26일 오후 6시 대전구장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호랑이 가족 한마당’ 개최

“올 한해 팬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프로야구 KIA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2006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 시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체육 행사 등의 이벤트가 계획돼 있다. 1, 2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선 1부 프로그램으로 사진촬영 및 사인회, 각종 게임 등이 열리고, 2부에선 팬과 선수들이

이 함께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 팬과 선수들이 숨겨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도 이어진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미니쿠션과 핸드폰 줄,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디지털 카메라, 백화점 상품권, 에버랜드 이용권, 사인볼, 유니폼 등 다양한 상품도 마련돼 있다. 이날 행사 참석 인원은 300명으로 제한

### 28일 오후 2시 무등경기장서 사인회·기념품 증정 등 다채

되며, 접수는 구단 홈페이지(www.kia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의 명칭 공모엔 총 863명이 응모한 가운데 영예의 금상에 김현경(영암군)씨가 제안한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 선정됐다. 김씨에게는 19인치 LCD 모니터를 상품으로 전달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말년 병장’ 정경호 결승골



### 광주, 인천 꺾고 탈꼴찌...전남, 제주 제압 수원 이관우·마토 연속골...후기리그 우승

광주 상무와 전남드래곤즈가 홈에서 승리의 축가를 동시에 올렸다. 광주는 25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후기리그 11라운드에서 정경호와 강용의 연속골로 인천을 2-0으로 완파하며 탈꼴찌에 성공했다. ‘말년 병장’ 정경호(광주)의 발끝에서 가끔씩 단비같은 첫 골이 터졌다. 정경호는 후반 25분 동료 여승원의 땅볼 패스를 이어받은 뒤 단독 드리블로 골문 앞까지 쳐도, 오른발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45분에는 광주 강용이 남궁도가 터치라인에서 뒤를 빼준 공을 오른발로 밀어 넣어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광주는 이로써 3승 1무7패(승점 7점·골득실 -6)으로 14위에서 11위로 경추 뛰어올랐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전남도 이날 광양 전용구장에서 산드로의 선제골과 켈미르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김길식이 한 골을 따라 붙은 제주 유나이티드를 2-1로 따돌렸다.

전반 9분 산드로의 선제골로 승기를 잡은 전남은 후반 5분 제주 김길식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전남은 그러나 후반 37분 상대 마철준의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켈미르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잡아차 승점 ‘3점’ 을 보냈다. 이밖에 수원 삼성은 이관우와 마토의 연속골로 경남 FC를 2-0으로 완파하고 후기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갈 길 바뀐 포항 스틸러스는 달구벌에서 대구FC와 1-1로 비겼고, 부산 아이파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로 ‘힘 조절’에 들어간 전북 현대를 2-0으로 눌렀다. 상암에선 성남과 서울이 2-2,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천수 징계수위 오늘 결정

심판에게 심한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천수(25·울산 현대)의 징계 수위가 26일 결정된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오전 11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지난 22일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관중에 대한 불만으로 심판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이천수의 추가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프로연맹은 지난 23일 울산 구단에 상벌위원회 개최 일정을 알리고 이천수가 참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참석 못할 경우에는 선수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진술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25일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프로축구 FC서울과 성남일화의 경기에서 성남의 김두현이 서울의 한태유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